



## 신라 박씨왕 시대의 왕실 세력과 신분 편성

Royal Influence and Identity Forming of the Park King Silla()

---

저자 (Authors)	김병곤 Kim, Byoung-go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탐구 28</a> , 2018.4, 59-92(34 pages) <a href="#">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8</a> , 2018.4, 59-92(3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탐구학회</a>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159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1594</a>
APA Style	김병곤 (2018). 신라 박씨왕 시대의 왕실 세력과 신분 편성. 한국고대사탐구, 28, 59-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0 10: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박씨왕 시대의 왕실 세력과 신분 편성

김 병 곤\*

- I. 머리말
- II. 박씨 왕실의 실재성
- III. 박씨 왕실의 혼인을 통한 세력 확장
- IV. 박씨왕 시대의 신분 편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 건국 초기에는 시조 朴赫居世를 포함해 박씨 성을 가진 7명의 왕이 존재하였다. 초기 기사를 불신하는 연구자들은 박씨 왕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국사』를 편찬케 했던 眞興王이 김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조 혁거세가 박씨였고 건국 초기 총 7명의 박씨 왕들이 재위하였다는 행적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었다. 이는 후대 김씨 왕족과 구별되는 혈통을 가진 시조와 후예 왕들이 실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신라인들이 분명히 전승시켰던 결과였다.

박혁거세는 육촌민의 추대로 즉위하여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독자 세력이 미약하였다. 이에 2대왕 南解는 선진 철제기술을 지닌 석씨 집단과 혼인하여, 육촌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며 독자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또 3대왕 儒理는 왕비의 아버지를 葛文王으로 책봉해 왕비 가계의 권위를 증대시켰다.

4대 왕으로 석씨 왕족의 시조 脫解가 즉위하였다. 탈해 역시 독자세력의 확보를 위해 새로 유입된 김씨 집단과 결합하였다. 5대왕인 유리왕의 2자 婆娑는 김씨 史省부인과 혼인해 석씨 왕족과 김씨 집단의 밀착을 약화시키며 김씨에 대한 왕실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파사왕의 적자인 6대왕 祗摩도 김씨 愛禮부인과 혼인하고 그녀의 아버지 마제를 갈문왕으로 책봉하였다. 파사왕과 지마왕은 김씨 집단과 거듭된 혼인을 통해 지지세력의 확산과 왕실 권위를 고양시켰다. 반면 유리왕의 장자

\* 동국대학교

逸聖이 7대 왕으로 박씨 □禮부인과 혼인했고, 그의 장자 阿達羅가 8대 왕으로 박씨 內禮부인과 혼인하였다. 일성왕과 아달라왕은 족내혼을 통해 박씨 왕족 자체의 응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박씨왕 재위기 斯盧國의 신분 편성을 보자. 우선 혁거세의 박씨 왕족과 남해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석탈해와 그 일족 그리고 박씨 왕과 거듭 혼인 관계를 맺으며 갈문왕에 책봉된 김씨 가계 등이 왕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층 지배 집단으로 박씨 왕족의 방계 혈족 그리고 혁거세를 추대해 사로국을 건국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육촌장과 그 일족 및 누대에 걸쳐 왕의 측근으로 요직을 수행한 瓠公 일가와 같은 인물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명확한 계층 분화가 확인되지 않지만, 육촌장의 방계 후손이나 각 촌에 소속된 마을의 장 등이 중하위 계층으로써 일반민과 구별되는 신분층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주제어 : 朴赫居世, 葛文王, 婆娑王, 김씨 史省부인, 阿達羅王, 박씨 內禮부인

## I. 머리말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제17대 내물왕이 김씨 왕권을 확립하기 이전 박·석·김의 삼성 집단이 왕위를 주고받았다. 특히 건국시조인 혁거세가 박씨 성을 가지고 있었고 제4대 석씨 성을 가진 탈해왕(A.D.57~80)을 제외한 8대 아달라왕대(154~184)까지 약 7명의 박씨 왕들이 재위하였다. 그리고 석탈해왕의 손자 별휴(184~196)가 제9대 왕으로 즉위한 이후 김씨 왕인 제13대 미추왕(262~284)을 제외한 16대 흘해왕(310~356)대까지 7명의 석씨 왕들이 재위한 이후 오랜 기간 박씨 왕의 재위는 없었다.<sup>1)</sup>

본고는 이러한 초기 왕계 중 박씨 왕들이 재위한 시기에 신라의 왕실

1) 하대의 3대 박씨 왕들(제53대 신덕왕, 912~917; 제54대 경명왕 917~924; 제55대 경애왕 924~927)이 있었지만, 시간적 격차가 크고 시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력과 당시 주요 집단의 신분 편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역사학 방법론에 입각해 신라사가 연구되던 시기부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인 학자들이었는데 일찍이 「신라본기」의 건국 설화나 타국과의 접촉 관계는 모두 후세의 사실에 입각 조작했다거나<sup>2)</sup> 상고기 왕명의 중복 양상을 주목해 제17대 나물왕대 이전 기록을 불신하거나,<sup>3)</sup> 하대 박씨왕 재위기 삼성 집단의 왕위 계승을 조작하였다는 견해까지 제시되어 있다.<sup>4)</sup>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본학자들은 초기 기사의 불신론에 입각해 신라사를 연구하며 본문에서 소개하겠지만 일부 국내 학자들도 이에 호응한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견해는 건국 시조의 역사적 실재성은 물론 박씨 왕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도입부에서 건국 초기 박씨 왕실의 실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박씨가 왕위에 오르던 상고기 왕실 집단의 구성 양상을 살펴보고,<sup>5)</sup> 최종적으로 후대 왕경을 구성한 6촌(후대 6부)의 신분 집단 편성까지 살펴보고 기록 하겠다. 다만 박씨 왕 시대의 각종 기록은 후대 정리되며 제법 착종이 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료도 소략하다. 그러므로 논지의 상당 부분이 추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津田左右吉,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日本書記の研究』, 岩波書店, 1924.

3) 今西龍,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253~254쪽.

4)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の成立」 『朝鮮學報』 48, 1968 ;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5) 신라시대의 왕실세력은 왕족, 왕비족, 왕모족으로 규정한 견해를 참고한다(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124쪽).

## II. 박씨 왕실의 실재성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을 보면, 일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박씨 왕족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다. 왕의 혈연과 혼인 관계 기사를 주 대상으로 인용한다.

1대 시조 혁거세. 시조의 성은 박씨이고 휘는 혁거세이다. 전한 효선제 오봉원년갑자 사월 병진날에 즉위하여 왕호를 거서간이라 하였다. 그때 나이 13세였고 국호는 서라벌이라 하였다.

5년 정월. 용이 알영정에 나타나 그의 오른쪽 갈빗대에서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 늙은 할멈이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데려다 기를 새, 우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그 여아가 자라 덩기가 있거늘 시조가 이를 듣고 맞아 비를 삼으니 과연 현행이 있고 내보를 잘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두 성인이라 일컬었다.

2대 남해차차웅이 즉위하니 혁거세의 적자이다. 모는 알영부인이요, 비는 운제부인(혹은 아루라고도 한다)이다.

5년 정월 탈해의 어짊을 듣고 장녀로써 짝을 지어 주었다.

3대 유리이사금이 즉위하니 남해의 태자다. 모는 운제부인이요, 비는 일지갈문왕의 딸이다(혹은 비의 성은 박씨로 허루왕의 딸이라고도 한다).

4대 탈해이사금이 즉위하니 그때 나이 62세이다. 성은 석씨요, 비는 아효 부인이다.

11년 정월, 박씨의 귀척으로 국내의 주군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니 호를 州主 郡主라 하였다.

5대 파사이사금이 즉위하니 유리왕의 제2자이다(혹은 유리의 아우 나노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비는 김씨 사성부인으로 허루 갈문왕의 딸이다. 처음에 탈해가 돌아가매 신하들은 유리의 태자 일성을 세우려 하다가,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일성은 비록 맏아들이나 위엄과 현명함이 파

사를 따르지 못한다 하여 드디어 그를 세웠던 것이다.

6대 지마이사금이 즉위하니 파사왕의 적자이다. 모는 사정부인(김씨)이요, 비는 김씨 애례부인으로 갈문왕 마제의 딸이다.

23년 8월 왕이 돌아가니 아들이 없었다.

7대 일성이사금이 즉위하니 유리왕의 장자이다(혹은 일지갈문왕의 자라고도 한다). 비는 박씨 지소례왕의 딸이다.<sup>6)</sup>

8대 아달라이사금이 즉위하니 일성왕의 장자이다. 키가 칠척이요 코가 크고 얼굴상이 기이하였다. 모는 박씨 지소례왕의 딸이요, 비는 박씨 내례부인이니 (6대왕) 지마왕의 딸이다.<sup>7)</sup>

제1 혁거세거서간, 성은 박이요, 알에서 태어났다. 나이 13세 갑자년에 즉위하여 60년을 다스리다 죽었다. 왕비는 娥伊英 또는 娥英이라고 한다.

제2 남해차차웅, 부는 혁거세요, 모는 闕英이다. 성은 박씨이고 비는 운제부인이다. 갑자에 즉위하여 20년을 다스렸다.

제3 노례니질금(또는 유례라고도 한다), 부는 남해이고 모는 운제부인이다. 비는 사요(허루)왕의 딸로 김씨이다.

제4 탈해니질금(또는 토해라고도 한다), 석씨이고 부는 완하국 함다라파왕이다. 모는 적녀국왕의 딸이다. 비는 남해왕의 딸 아노부인이다.

제5 파사니질금, 성은 박씨이고 부는 노례왕이다. 모는 사요(허루)왕의 딸이고 비는 사초부인이다.

제6 지마니질금, 또는 지미라고도 한다. 성은 박씨이고 부는 파사왕

---

6) 이상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2.

이다. 어머니는 사초부인이고 비는 마제국왕의 딸 □례부인으로 애레라고도 하는데 김씨이다.

제7 일성니질금, 부는 노래왕의 형인데, 혹 지마왕이라고도 한다. 비는 □례부인으로 일지갈문왕이 부이다. 혹 □례부인은 지마왕의 딸이고 어머니는 이간생부인이라고도 한다.

제8 아달라니질금.

제9 별휴니질금.<sup>8)</sup>

이상과 같은 박씨 왕실의 재위 기간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BC 57년 ~ AD 184년에 이르는 약 241년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일인 학자들을 필두로 초기 기록은 전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 물론 이후 국내학자들이 나름 기년 조정을 통해 수정된 역사관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거나,<sup>9)</sup> 적극적으로 초기 기록을 신뢰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일반론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발굴 조사 결과와 연계성이 높고 객관적 입장에서 편찬되었다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한전 기사와 상충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3세기대 이미 진한을 제패한 것으

8) 이상 『삼국유사』 권1, 왕력1.

9) 金哲垓,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 1962 : 『韓國古代社會研究』, 智識産業社, 1975 ;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の 再構成 試圖」 『東洋學』 3, 1973 ; 李仁哲, 「新羅上古世系の 新解釋」 『清溪史學』 4, 1987 ;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10)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 26, 1975 ;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 2, 1976 :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1983 :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 申滢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 앞의 책, 1982.

로 되어 있지만 『삼국지』 「한전」에는 여전히 진한 12국 중의 일국에 불과하다. 더불어 초기 왕들의 지나치게 긴 재위 기간이나 오류가 심한 인척 관계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삼국 간의 접촉 기사 등은 초기 기록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박씨 왕 재위기로 한정해 보더라도 삼국 중 가장 후진적인 신라가 건국 기년은 가장 빠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건국 기년이 BC 57년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신라는 후대 고려나 조선 왕조의 출범처럼 뚜렷한 건국 인식을 가지고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라인들은 사로국의 기층집단인 육촌민들이 조선 유민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고조선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이 경주 일대 정착하여 육촌을 형성했다가 연맹을 맺어 한 단계 발전된 정치체를 형성하였지만, 국가의 출범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적고 당시 정확한 기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인들은 육촌민의 출자가 조선 유민이었다는 자신들의 전승에 의거해 고조선 멸망 이후 최초의 혁신세인 갑자년을 건국 기년으로 설정해 『국사』에 정론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곧 신라의 건국이 BC 57년으로 기록된 것은 나름 신라인들이 지녔던 역사 인식을 기초로 설정된 결과이다.<sup>11)</sup>

한편 제1대 혁거세와 제2대 남해왕의 즉위년이 모두 갑자년이라거나 혁거세의 재위기간이 정확히 일갑자인 60년인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이는 건국시조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시조 혁거세의 왕호는 거서간인데 2대왕 남해의 왕호가 차차웅이었다는 점도 의아하다. 왕호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면 왕호 개변은 자주 있기 어렵다. 그러므로 거서간과 차차웅이 1대에 한하여 왕호로 사용되었음은 부자연스럽다.

이사금의 경우 남해왕의 적자 유리와 사위 탈해가 왕위를 놓고 경쟁했

11) 김병곤,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신라사학보』 23, 2011.

던 행적에서 유래하였다는 경위는 사실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사금이 제3대 유리왕부터 왕호로 채용되었음은 신뢰할 수 있다. 이후 『삼국사기』에 입각해 볼 때 이사금은 16회, 마립간은 4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이사금과 마립간의 왕호를 채용한 왕들이 이와 같이 다수인 것을 참고하더라도 거서간과 차차웅이 1대에 한하여 사용되었음은 더욱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유리왕 이전에 거서간과 차차웅의 왕호를 사용한 더 많은 왕들이 있었을 여지가 높다. 아마 전승의 부재라던가 시조 혁거세의 신성성을 높이고자 치세를 연장하는 가운데 거서간과 차차웅의 왕호를 가졌던 다수 박씨 왕의 행적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기 박·석·김 왕실 집단의 성씨 사용도 당대 사실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신라 왕실에서 한자식 성을 사용한 시기는 『북제서』를 참고해 볼 때, 6세기 중반의 진흥왕대에 이르러서이다.<sup>12)</sup> 유리왕 5년 사료국 형성의 기층 집단을 형성한 6촌(6부)민들도 성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신뢰할 수 없다.<sup>13)</sup> 건국 초기부터 왕실은 물론 주요 유력 집단 등이 성씨를 소유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씨 채용이 없었던 상고기 왕실 집단의 혈통까지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사에 있어서 최초의 관찬 사서인 『국사』 편찬은 진흥왕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4)</sup> 아마 다양하게 구전 내지 전승 되어오던 단편적인 과거 사실들을 왕실 차원에서 이 시기 정리하여 『국사』 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비록 오늘날 『국사』가 현전하지 않지만 고려 시대 전기의 『(구)삼국사』나 김부식에 의해 편찬된 『삼국사기』의 저본 자료로서 활용되었을 여지는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진흥왕대 편찬된 『국사』에서 당시 왕의 성 김씨가 아닌 박씨 성을 가진 혁거세

12) 『북제서』 권7, 제기7, 무성 하청 4년 2월 갑인, “詔以新羅國王 金眞興爲使持節”.

13) 『삼국사기』 권1, 유리왕 5년.

14) 『삼국사기』 권4, 진흥왕 6년 7월.

를 시조로 삼았다는 것이다.

관찬사서인 『국사』 편찬을 주도한 김씨 왕실의 시조관은 변화가 많았다. 우선 알지가 김씨 시조로서 주목받은 시기는 천강자나 그 후예가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상고기 계승관에 입각할 때,<sup>15)</sup> 최초의 김씨 왕인 미추왕대를 하한으로 볼 수 있다. 알지의 탄생 연도가 AD 65년설<sup>16)</sup> 및 AD 60년설과 61년설<sup>17)</sup> 등이 있어 다양한 저본이 상정되지만, 알지가 상고기 유일한 김씨 시조로 인정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소지~지증왕대 천강자 알지를 주신으로 모신 신궁이 설립되며 알지에 대한 시조관이 왕실 차원에서 공인되었다.<sup>18)</sup> 그런데 김씨 왕실은 중고기 가계 의식의 구체화 속에 혈통의 분지화가 나타났고, 방계로 즉위한 무열왕은 중국 상고 신화에 나오는 소호금천씨를 그들의 시조로 천명했다.<sup>19)</sup>

결과적으로 상고기 삼성 교립의 양상과 석씨 및 김씨 왕실의 시조관을 참고한다면 천강자 혁거세를 건국시조로 하는 인식의 성립 하한은 마지막 박씨 왕인 아달라왕대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고유 시조가 있었던 석씨왕 시대에 들어서도 혁거세에 대한 시조관의 변화는 없었다. 이는 혁거세를 건국 시조로 삼는 뚜렷한 시조관의 정착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러한 시조관의 정착 시점은 혁거세를 주신으로 삼아 시조묘를 건립한 남해왕 재위 시기였을<sup>20)</sup> 것이다.

15) 김병곤, 「신라 시조 인식의 변천과 五廟制의 太祖(始祖)大王에 대한 시론」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04~220쪽.

16) 『삼국사기』 권1, 탈해왕 9년 3월.

17)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알지탈해왕대.

18) 金炳坤, 「新羅 初期王權의 成長과 天神信仰」 『韓國思想史學』 13, 1999 : 『신라왕권성장사연구』, 학연문화사, 2003.

19) 李文基,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 1999 ; 李文基,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背景」 『金廷鶴博士米壽紀念 考古學·古代史論叢』, 1999.

20) 『삼국사기』 권1, 남해왕 3년 1월.

김씨 왕인 진흥이 『국사』에 건국 시조를 그들과 다른 혈통을 가진 박혁거세로 적기하였다. 이는 당시 김씨 왕족과 구별되는 다른 혈통을 가진 후대 박씨 성을 천명한 귀족 집단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들의 시조인 혁거세가 분명한 건국 시조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사』는 물론 고려 초 편찬된 『(구) 삼국사』에서도 동일한 시조관이 유지되었고, 『삼국사기』에 적기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라 역사상 박혁거세가 지닌 건국 시조로서의 사실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혁거세의 뒤를 이어 8대까지 즉위했던 후대 박씨 성을 가지게 된 왕들의 존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혁거세 이후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세력이 충분하지 못했고 더불어 지배체제의 미비 속에 독점적인 왕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석씨 집단에게 왕위를 내어 준 이후 왕위를 되찾을 만한 세를 얻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씨 성을 가진 제17대 내물왕이 즉위한 이후 김씨 집단이 왕위를 독점했다. 초기 왕족인 박씨는 재위에 실패한 채, 제22대 지증왕 ~ 제23대 법흥왕 ~ 제24대 진흥왕대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김씨 왕들과 혼인하며 왕비족의 위상을 소유했을 뿐이다.

진흥왕대부터 왕과 그의 혈족이 김씨 성을 지니자, 과거 건국 시조의 후예로서 초기 왕실을 이루었고 중고기 초 왕비족의 위상을 유지하던 혈족들도 박씨 성을 지녔을 것이다. 진흥왕의 김씨 성 관칭이 확인되는 시점은 진흥왕 25년(564) 북제에 사신을 보낸 시기이며 『국사』 편찬은 진흥왕 6년(545)이다. 시기적으로 『국사』 편찬이 19년 빠르지만 『국사』 편찬기에 상고기 왕위를 교립했던 삼성 집단이 성씨를 채용했거나, 아니면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며 진흥왕이 김성을 관칭하자 이후 『국사』에 삼성 집단의 성씨를 일괄 가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조인 박혁거세를 필두로 한 초기 박씨 왕들의 행적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진흥왕의 『국사』 편찬시 이들의 이름과 혼인 관계 그리고 주

요 행적이 왕실 차원에서 정리 기록되었다. 이는 신라인들이 지녔던 시조 혁거세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동일 혈통으로 계위했던 초기 왕들에 대한 분명한 전승으로 인해 이들의 존재감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물론 초기 기록이 오늘날 연구자들에 의해 불신되는 바와 같이 재위 기간과 타국과의 대외 관계 등은 정합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 실제 구전 전승에 대한 치밀함은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공허한 시기에 대한 채움의 과정에서 후대 사실들이 역급되어 비정상적으로 기록되었다. 더하여 일부 인물들에 대한 의도적인 신성화도 존재했다. 그렇지만 초기 기록이 가진 이러한 비정합성이나 한계들이 박씨 왕통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Ⅲ. 박씨 왕실의 혼인을 통한 세력 확장

고조선에서는 기원전 4세기 말 ~ 3세기 초 연과의 전쟁 시기부터 기원전 108년 멸망 전후기에 이르기까지 누차에 걸쳐 한반도 남부로 유민들의 유입이 있었다. 비록 BC 57년 신라가 건국되었다는 기년 자체는 신뢰할 수 없지만, 고조선 멸망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고조선의 선진 문화를 지닌 혁거세가 경주에 유입되며 육촌민의 추대를 받아 사로국을 건국하였음은 사실로 여겨진다. 특히 서북 지방의 청동기·철기 문화는 경주의 이른 시기 토광목관묘 문화와 강한 계승성이 있다.<sup>21)</sup> 곧 경주 일대에 기원전 2세기 말 ~ 1세기 초로 편년되는 토광목관묘 축조는 서북한 지역의 위만조선기 ~ 한사군기의 청동기 철기 문화와 연계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박혁거세 집단의 유입에 따른 사로국의 건국을 시사한다.<sup>22)</sup>

21)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李鍾宣, 「細形銅劍文化的 地域의 特性」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그러므로 사로국의 건국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기년인 BC 57년과 큰 괴리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혁거세의 뒤를 이어 계위했던 박씨 왕들의 존재도 충분히 인정된다. 물론 초기 기록 중 전승되던 혼인 및 혈연관계가 후대 정착되면서 왜곡되었다. 후대 사실의 역급이 분명한 일부 박씨 왕들의 행적과 이와 연계된 기년 등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여러 왕들의 혼인 관계라던가 부자 부녀 관계 등에 이설이 부기되어 있음은 이들이 전적인 허구에 의해 창출된 내용이 아닌 나름의 여러 전거 자료들을 취합 정리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신뢰 가능한 행적들을 중심으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고조선 멸망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박혁거세 즉위에 따른 사로국이 건국되며 출현한 왕실 집단의 구성을 살펴보자. 건국담에 따르면 혁거세는 선주 집단인 육촌장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 5년 유력 토착집단으로 여겨지는 사량리(돌산고허촌)의 여성 알영을 비로 맞이하였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인정하면 혁거세는 선주 육촌민과 촌장들의 지원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이는 혁거세가 자립할 정도의 세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닌 문화적 내력이 선진적이었거나 남다른 정치적 재능을 소유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 세력이 미약한 혁거세는 세력 안정 및 확장이 필요하였고, 이에 선주

- 22) 金元龍, 「慶州九政里出土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1952 ; 金元龍,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 李清圭, 「細形銅劍의 形式分類 및 그 變遷에 對하여」 『韓國考古學報』 13, 韓國考古學會, 1982 ; 崔鍾圭, 「慶州 九政洞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 139호, 1983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김재홍,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1996, 112~113쪽 ; 김병근, 『신라왕권성장사연구』, 학연문화사, 2003, 132~179쪽 ; 文昌魯, 「新羅와 樂浪의 關係」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183~187쪽 ; 이주현, 「경주 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文化財』 4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09~130쪽.

유력 집단의 여성인 알영을 비로 맞이하였다. 그 결과 왕 혁거세와 비 알영을 기축으로 하는 왕족 일가가 출현한다.

현재 그 터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혁거세왕은 재위 21년 왕성을 축조하여 금성이라 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6년 금성에 궁실을 지었다.<sup>23)</sup> 궁실이 지어진 금성은 왕과 그 가족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당시 혁거세 가족으로 왕비 알영과 그의 사후 계위한 적자 남해가 확인된다. 남해왕은 재위 3년 혁거세를 모신 시조묘를 건립하고 친매 아노로 하여금 주재케 하였다.<sup>24)</sup> 그러므로 추가적으로 혁거세의 딸 아노가 확인된다.

이렇게 시작된 신라 박씨 왕족은 이후 왕자와 왕녀의 혼인 및 계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왕족의 확산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왕족의 혼인은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서 기인된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성을 띄고 전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박씨왕 시대 왕족의 혼인 양상을 분석해 왕실 집단의 확산과 정치적 목적 등을 파악해 보겠다.

2대왕 남해는 운제부인을 비로 맞이하였고 아들로서는 3대왕으로 계위한 장남 유리와 4대왕으로 즉위한 파사가 유리왕의 제2자라 한다. 그러므로 남해왕은 장남 유리, 2남 파사 등 두 명의 아들을 거느렸다. 그는 재위 5년 장녀(탈해왕의 즉위년에는 아효부인으로 되어 있다)를 석씨 성을 가진 탈해와 혼인시켰다. 탈해와 결혼시킨 딸이 장녀라는 것으로 보아 남해왕은 복수의 딸을 거느린 듯하다. 탈해는 혁거세보다 후래한 유이민 집단인데, 바다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아 집단 규모가 크지 않은 듯하다. 탈해의 성이 석이라던가 월성 호공의 집을 빼앗는 행적을 보면 선진적인 철제 기술을 가진 집단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탈해는 개인의 현명함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남해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왕족 일원이 되었다. 후일 유리는 탈해를 國戚이라 일컬었다.<sup>25)</sup> 남해왕의 입장에서든 기존의 6

23)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혁거세왕 21년, 26년.

24) 『삼국사기』 권33, 잡지1, 제사1.

촌 특히 모계인 돌산고허촌의 지지가 있었겠지만, 선진 문화를 지닌 후래 집단 탈해와 혼인을 통해 왕실 세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이는 박씨 왕족이 출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행사했던 6촌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었다.

3대왕 유리는 남해의 태자로서 비는 일지갈문왕의 딸이다. 일지갈문왕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갈문왕이다. 중고기의 갈문왕은 유사시 왕권의 대행자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리왕대 일지갈문왕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관련 기록 양상으로 보아 일지는 왕비의 아버지였던 까닭에 갈문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후 상고기에 책봉된 갈문왕들도 왕비의 아버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sup>25)</sup> 그리고 이러한 갈문왕의 책봉은 왕비 가문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행위로 박씨 왕족의 권위를 증강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4대왕 탈해는 석씨 왕이므로 주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탈해왕대 박씨 왕족의 동향을 파악할 만한 행적이 있다. 우선 탈해는 재위 8년 계림에 탄강했다는 김씨 집단의 시조 알지를 양자로 맞아 들였다. 석탈해의 알지 입양은 후래 유이민 집단인 김씨 집단과의 결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적이다. 탈해가 남해왕의 사위로서 왕족에 편입되었고 왕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후손이 계위에 실패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할 정도의 세력은 아니었다. 그는 기존 박씨 왕족과의 경쟁은 물론 이들과 결탁해 있는 또 다른 유력가문인 호공과도 경쟁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탈해는 박씨나 호공 집단과 유리된 새로운 정치 집단과 결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탈해왕 재위 시기 후대 ‘김’으로 성씨가 설정된 것이나 풍부한 금제 부장

2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유리왕 34년 9월.

26) 李基白, 「新羅時代の 葛文王」 『歷史學報』 58, 1973 ;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0~11쪽.

품을 가진 적석목곽분의 축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진적인 아금 기술을 가진 알지 집단이 유입되었다. 이에 탈해는 알지와 결탁을 토대로 석씨 집단의 세력 증강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탈해왕은 이로부터 3년 후인 재위 11년 박씨 貴戚들을 국내 주군에 나누어 살게 하고 그들을 州主 郡主라 하였다.<sup>27)</sup> 당시 사로국의 직접 지배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의 사회 발전 척도를 감안하면 지방에 중국적인 행정 단위인 주나 군을 설치하였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나 박씨 귀척을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행위는 당시 혁거세대부터 박씨 왕족의 성원 수가 증가한 결과 가계의 分枝化가 있었음을 반증한다.<sup>28)</sup> 동시에 이는 석씨 집단과 왕위를 놓고 직접 경쟁하던 박씨 왕실의 힘을 분산시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해와 알지의 결탁은 석씨 왕실의 세력 확장이며, 박씨 귀척의 지방 분치는 왕경 내에서 박씨 왕족에 대한 견제책으로 파악된다.

5대왕 파사는 박씨 유리왕의 2자로 탈해를 이어 즉위하였다. 당시 박씨 왕족은 탈해 사후 왕위 계승을 놓고 석씨와 경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사로국의 지배층은 유리왕의 적자인 일성이 아니라 2자인 파사를 지지하여 즉위시켰다. 남해나 유리의 왕위 계승이 적자였다는 점을 보면 파사의 계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형제인 일성과 파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여지가 높다. 그럼에도 2자 파사가 계위에 성공할 수 있었음은 그를 지지한 세력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파사왕의 혼인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사왕의 정확한 혼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허루갈문왕의 딸인 김씨 사성 부인을 비로 맞이하였다. 사성 부인은 박씨 왕과 혼인한 최초의 김씨 여성이다. 혼인을 통해 김씨 집단이 왕족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파사왕

27)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왕 11년 춘정월.

28) 이종욱, 앞의 책, 1982, 138쪽.

이 김씨 사성부인과 결혼한 행적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탈해가 알지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석씨와 후래 유이민 세력인 김씨 집단과의 결탁을 시사한다. 탈해왕은 김씨 집단과 결탁을 통해 석씨 왕실의 힘을 강화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리왕의 2자인 파사가 김씨 사성부인과 혼인했다. 이를 통해 석씨 왕족과 김씨 집단의 밀착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탈해왕대 이루어진 석씨 왕족의 세력 강화에 대한 박씨 왕족의 대응책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파사왕은 왕비의 아버지인 허루를 갈문왕으로 책봉하여 왕비 가문의 권위를 높였다. 허루 역시 왕비의 아버지 자격으로 葛文王에 책봉되었으니, 최초의 김씨 성을 가진 갈문왕이다. 이를 통해 파사는 박씨 왕족과 김씨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며 정치적 지원 집단을 확장하고 왕족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파사왕은 재위 22년 월성을 축조하고 이곳에 이거하였다. 당시 신라 왕성은 금성이었고 왕의 일가는 금성 내 궁성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당시 파사왕이 석씨 왕족의 본거지에 월성을 축조하고 이거한 계기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파사왕대의 행적은 다음과 같은 정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파사왕과 사성부인의 혼인을 통해 박씨 왕실의 세력 확장 및 석씨 왕족에 대한 견제를 도모하자, 석씨 집단은 이에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파사왕은 석씨 집단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을 추가로 강구했다. 이에 파사왕은 석씨 왕족의 본거지인 월성 일대에 별궁(월성) 축성을 추진했고 석씨 집단은 당연히 반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파사는 월성을 축조했고, 이곳에 이거한 이후 박씨 왕족을 거주케 하였다. 이를 통해 파사왕은 석씨 집단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높이고 일반 백성에게도 석씨 왕족을 능가하는 박씨 왕실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다.

6대 지마왕은 파사왕의 적자로서 어머니는 김씨 사성부인이고 비도

김씨 애례부인으로 갈문왕 마제의 딸이다. 마제는 한기부의 유력자로 허루와 경쟁하여 그의 딸을 왕자인 지마와 혼인시켰다. 이를 통해 마제는 왕비의 아버지로 갈문왕이 되었고 그의 일가도 왕족으로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5대 파사왕과 6대 지마왕은 부자 관계이면서 모두 김씨 일족과 혼인하여 박씨 왕실과 김씨 집단의 결속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유리왕의 제2자인 파사가 신하들의 지지를 얻어 장자인 일성 보다 먼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의 하나도 그가 김씨 집단과 혼인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박씨 집단은 석씨 집단과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대 유입 집단인 김씨 집단과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력 확장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지마왕대까지 2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7대왕으로 유리왕의 장자 일성이 계위에 성공한다. 다만 아버지 유리와 장자 일성의 몰년이 각각 57년과 154년으로 되어 있어, 어디선가 분명 오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아무튼 일성의 즉위는 조카인 지마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성왕은 파사왕 및 지마왕과 달리 비가 박씨 지소례왕의 딸로써 이름이 □례부인이라고만 전한다. 곧 일성왕은 동성의 왕비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일성은 재위 15년 박아도를 갈문왕으로 책봉하는 이례적인 행적을 보였다. 아도는 유리왕의 아들이자 일성왕의 아버지로 보거나,<sup>29)</sup> 혈연적으로 일성왕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파사왕의 증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30)</sup> 이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아도의 성으로 보아 그는 박씨 왕족의 일족이었지만 왕비의 아버지로 나오는 지소례왕과 동일인은 아니다. 이전까지 갈문왕은 왕비의 아버지를 책봉한 것으로 기록에 확인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소례왕은 사로국의 갈문왕으로 이해해 왔지만<sup>31)</sup> 인접

29) 李基白, 앞의 책, 1974, 20쪽 ; 李鍾旭, 앞의 책, 1980, 66쪽.

30)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2015, 49쪽.

소국 왕으로 추정되기도 한다.<sup>32)</sup> 그러나 아도가 박씨 성을 가지고 있어 동일 혈족으로 갈문왕에 책봉된 듯하다. 아마도 일성왕은 자신의 아우 가계인 파사-지마가 김씨 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세력 확장에 주력한 것과 달리 동일 일족인 박씨 왕족에 대한 우대를 통해 박씨 왕족 자체의 집결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지지를 통해 계위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일성왕의 장자로서 계위한 제8대 아달라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달라는 일성왕의 장자이며 모는 박씨 지소례의 딸이다. 비는 박씨 내례부인이니 제6대 지마왕의 딸이다. 곧 아달라는 일성왕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사촌인 내례부인과 혼인을 통해 지마왕의 사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된 박씨 왕족간의 혈통을 소유하여 왕족 내에서 계위하는데 최우선적인 혈통상의 우위를 자연스럽게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일성과 아달라왕 2대에 걸쳐 박씨 왕족은 자신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근친혼의 결과인지 아니면 국왕 부부의 신체적 결합에 의한 것인지 아달라왕은 내례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의 후예들은 남해왕 유리왕대까지 직계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유리왕 이후 적자인 일성과 2자인 파사 가계의 분지화 속에 두 형제는 각기 다른 방식의 왕위 계승 및 강화책을 추구하였다. 우선 유리왕의 적자 혈통을 지닌 일성~아달라는 족내혼을 통해 박씨 왕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것은 일성과 아달라가 유리왕계의 적통을 잇는 가계였기 때문에 혈통이 다른 김씨나 석씨와의 혼인보다 동일 혈족인 박씨와의 족내혼을 적극 유지하려 했기 때문일 여지도 있다.

31) 今西龍, 「新羅葛文王考」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250쪽.

李基白, 앞의 글, 1973 ; 앞의 책, 1974, 10~11쪽.

32) 宣石悅, 「新羅 葛文王之 再檢討」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2000, 864~867쪽.

반면 유리왕의 2남인 파사와 그의 아들 지마는 김씨 집단과의 혼인을 통해 박씨 왕족의 영향력을 외부로 확대하려 노력했다. 아마도 이러한 파사의 선택이 김씨 집단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형보다 먼저 계위하는데 성공했을 것이다.

한편 김씨 집단은 파사와 및 지마왕과 연속된 혼인 관계를 맺고 비의 아버지가 갈문왕에 책봉됨으로써 왕족으로 편입되었다. 동시에 이들은 탈해왕의 아들인 구추각간과 혼인함으로써 석씨 왕족과도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씨 왕족은 박 석씨 왕족과 연계되는 정치적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왕위에 직접 오르지 못하였지만 왕의 일족으로써 정치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씨왕 시대 유리왕의 적자로서 왕위에 오른 일성과 아달라가 박씨 왕족의 동성 혼인을 통해 박씨 왕족의 결속을 다졌다. 반면 잠시 왕위 경쟁에서 뒤쳐져 있던 석씨 왕족은 김씨 집단과 혼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며 세력 확장을 이루었다. 이에 아달라왕이 무자로 죽자 탈해왕자 구추각간의 아들이자 김씨 지진내례부인을 어머니로 한 벌휴가 제9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석씨 왕들의 계보를 검토해 보면 탈해왕을 제외한 석씨 왕족 가운데 박씨와 혼인한 예가 없다.<sup>33)</sup>

그러므로 이후 박씨 왕은 왕위 쟁탈전에 우위를 점할 기회를 상실하며 계위에 실패한다. 반면 석씨는 김씨 집단과의 혼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 벌휴왕의 아들 골정은 김씨 구도의 딸 옥모부인과 혼인하였다.<sup>34)</sup> 벌휴왕 사후 석씨 왕실은 골정계와 이매계로 구분되는데, 이매계는 석씨 왕실 내에서 족내혼을 행한 반면, 골정계는 김씨 집단과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 곧 조분왕의 딸 광명부인은 미추왕과 혼인하였으며,<sup>35)</sup> 석씨 등보 아간

33) 선석열, 앞의 책, 2015, 51~61쪽.

34)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조분왕 즉위년.

35)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왕 즉위년.

의 딸 이리부인은 실성왕의 아버지 대서지와 혼인하였다.<sup>36)</sup> 이와 같은 석씨 왕족과 김씨 집단 간에 있었던 일련의 혼인 관계는 결과적으로 의도한 바인지 모르나 박씨 왕족의 정치적 입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눌지왕이 즉위하며 석씨 왕족을 무력화시키고 이후 김씨 왕족과 박씨 왕족의 유대 관계가 강화된다. 그 결과 상고기 박씨 왕족은 중고기 22대 지증왕부터 25대 진지왕에 이르기까지 왕비족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 뛰어 하대 3명의 박씨 왕이 다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혁거세 가계와 연계되는 박씨 혈족이 여전히 왕족으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시사한다.

#### IV. 박씨왕 시대의 신분 편성

본 장에서는 박씨왕 시대의 신분 편성을 살펴보겠다. 일단 앞장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해당 시기 신분의 최상층에 박혁거세 일족과 이들과 통혼하며 왕위에 올랐던 석탈해와 그의 직계 자손들 그리고 왕족과 자주 통혼한 김씨 일족이 왕족으로 존재하였다. 당시 왕족은 최상층 지배계급으로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을 것이다. 신라사에 있어서 왕족의 근친혼은 주로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졌지만, 특권을 누리는 최상위 신분층의 수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왕가의 근친혼이 하대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 상고기부터 왕의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은 동등한 특권을 누리기 어려웠고 신분의 격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왕족을 제외한 소위 유력 집단과 기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민의 신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

3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실성왕 즉위년.

작점은 혁거세를 추대하여 건국을 주도했던 집단인 육촌의 신분 편성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혁거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육촌장과 그의 직계 가족은 건국 이후 육촌민과 구별되는 신분층을 이루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건국 전부터 6촌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국기의 6촌이 실재했다거나 후대 6부로 발전했다고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육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대요는 후대 신라가 세력 확장의 와중에 축차적으로 육부를 형성하고 이를 역급하여 육촌을 위작하였다는 것이며,<sup>37)</sup> 동시에 육촌장이나 그들이 지닌 천장 설화 등도 역시 불신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sup>38)</sup> 반면 육촌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어 육부의 전신으로 육촌을 인정하는 견해도 많다.<sup>39)</sup>

필자는 육촌의 실재는 물론 후대 육부와와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37) 津田左右吉, 앞의 글, 1924 ; 末松保和, 「新羅建國考(1932)」 및 「新羅六部考(1936)」, 앞의 책, 1954 ; 村上四男, 「新羅王都考略」 『朝鮮學報』 24, 1962, 46쪽 ;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63 ; 武田幸男, 「新羅六부와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1990 ; 朱甫暉,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新羅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9~19쪽 ; 全德在, 「上古期 新羅六部の 性格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 12, 1995 ;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8.

38)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598쪽.

39) 李丙燾, 「新羅의 起源問題」, 앞의 책, 1976 ; 丁仲煥, 「斯盧六村에 對하여」 『釜山 文理大學報』 3, 1960 ; 丁仲煥, 「斯盧六村과 六村人의 出自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合, 1962 ; 李鍾恒, 「新羅六部考」 『國民大學論文集』 1, 1969 ;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 李鍾旭, 「新羅 上古時代의 六村과 六部」 『震檀學報』 49, 1980 ; 앞의 책, 1982 ;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1 ; 金在弘, 「新羅 中古時代의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 김재홍, 앞의 글, 1996 ; 姜仁求, 「斯盧六村과 國家의 成立段階 試考」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學研文化社, 1997.

서 있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지증왕 4년(503년) 건립된 「영일냉수리신라비」와 법흥왕 11년(524년) 건립된 「울진봉평신라비」를 참고해 보면, 후자의 경우 ‘신라육부’의 표기가 나오지만 두 개의 금석문 모두 양부와 사랑부가 나머지 부를 압도하는 위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포항중성리신라비」와 「단양적성비」, 「진흥왕순수비」에서도 동일하다. 곧 중고기 초 양부와 사랑부의 우세가 명백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이러한 양상은 김씨 왕권의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삼성 교립기 삼성 집단은 자신들의 천강시조가 지닌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그 후예로써 계위할 자격을 주장하였고, 천강시조를 모신 시조묘와 신궁 친사를 즉위 의례로 삼았다. 곧 상고기부터 중고기 초에 이르기까지 천강시조 숭배로 상징되는 천신신앙이 지배이념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0)</sup>

그런데 만일 후대 육촌이 분화 내지 축차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이들에게 각각의 천강 시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박·석·김의 왕족 집단이나 주도권을 장악한 양부 사랑부의 장들이 쇠락해 가는 나머지 4부에게 그들과 동등한 천신족의 권위를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역설적으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천강 시조가 육촌에 존재하였다면 이는 육촌이 건국기부터 존재해 왔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담과 달리 신라의 건국 과정에서 시조 혁거세의 위상이나 역할은 수동적인데, 이는 혁거세를 추대하여 사로국 건국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육촌장의 행적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sup>41)</sup>

그렇다면 사로국이 건국된 이후 박씨왕 시대 육촌장과 그의 직계 가족은 기층집단이라 할 만한 촌민에 비해 상위의 정치적 위상을 소유하였을

40) 金炳坤, 앞의 글, 1999, 12~36쪽 : 「新羅 骨品制度 成立期の 思想的 基盤」 『新羅文化』 22, 2003, 189~206쪽.

41) 김병곤,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천강자로 기록된 6촌장들이 각자 자제들을 데리고 알천 강가에서 입방설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건국 이전부터 6촌의 촌장은 각 촌락을 대표하는 위상을 소유하였고 이러한 위상은 혈연적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각 촌을 대표하는 촌장이 소속 촌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6촌의 사회 발전 척도에 대해 진한 12국의 6개 소국이나<sup>42)</sup> 준국가단 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sup>43)</sup> 그러나 육촌장들이 천강자임을 내세우고 있음과 당시 계층 분화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현상을 감안해 보면, 육촌은 경주 일대의 씨족 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된 혈연 공동체 사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sup>44)</sup> 그렇다면 육촌장은 천강자라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촌을 대표하면서 전통과 관습에 의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만이나 주술사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 그 위상은 혈연적으로 세습되었으므로 대대로 해당 촌의 유력 가문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상을 가진 6촌장이 새로운 유입 집단의 장인 혁거세를 왕(거서간)으로 추대하여 사로국을 건국하였다. 건국 과정에서 6촌장들의 역

42) 末松保和, 앞의 책, 1954 ; 金哲垓, 「新羅上古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 1952 ;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1976 ;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 文暉鉉, 『新羅史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83 ; 徐毅植, 「辰韓六村의 性格과 位置」 『新羅文化』 21, 2003 ; 宣石悅, 앞의 책, 2001 ; 선석열, 「신라본기의 전거자료 형성과정」 『韓國古代史研究』 42, 2006.

43) 이종욱, 앞의 책, 1982.

44)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324쪽 ; 朴光淳 역, 범우사, 1989 ; 今西龍, 앞의 책, 1933, 30~32쪽 ; 李德星, 『朝鮮古代社會研究』, 正音社, 1949, 22~23쪽 ; 李丙燾, 앞의 책, 1976, 598쪽 ;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1 古代篇, 1982, 20쪽 ; 丁仲煥, 앞의 글, 1962, 427쪽 ; 李文基, 「新羅中古의 六部에 관한 一考察—骨品制와 관련하여—」 『歷史教育論集』 1, 1980, 63쪽 ; 李賢惠, 앞의 책, 1984.

할이 지대하였으므로 촌장과 직계 가족 역시 사로국의 지배층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정치적 위상은 왕실 집단에 비교되지 못하나 상급 귀족으로서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아마도 6촌장의 혈족들은 진흥왕대 이후 박·석·김의 왕족들이 성을 관칭한 이후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은 이·최·손·정·배·설 등의 성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성씨를 소유했음은 이들이 일반민이 아닌 중앙 귀족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런 까닭에 후대 성씨를 가진 6촌장의 혈족들은 건국 직후 왕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촌 내에서 최상위 지배층으로 존재했다. 여러 중고기 초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부의 ‘干’층이 이들과 혈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골품제도하 6두품의 신분층을 구성하게 되었을 것이다.<sup>45)</sup>

건국 전후기부터 각 촌의 최상위 지배층인 촌장 가문 이외 촌 내부에 계급이나 계층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물론 이들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만한 자료가 전무하여 자세하게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주의 왕경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는 왕족을 제외한 하위 신분층을 6두품 ~ 1두품으로 구분했다. 중고기에 법제화한 골품제도는 상고기 주변 소국을 통합하여 소위 신라라고 하는 고대국가로 발전하며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신라는 정복한 소국의 지배층을 세력 크기에 따라 적절히 두품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두품 소지자들의 출자가 모두 피정복민일 수 없다. 특히 골품제도 자체가 외적으로 비왕경민은 누릴 수 없는 왕경민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sup>46)</sup> 그런 까닭에 오히려 대부분의 두품 소유자들은 경주 지역의 토착민 곧 상고기 6촌민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45) 이종욱, 앞의 책, 1982.

46) 골품제도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나 본 제도의 성립 운영이 왕경민의 특권을 유지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은 필자의 글을 참고하시오(金炳坤, 앞의 글, 2003 ;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 43, 2014).

그러면 사로국내 촌장 혈족 이외 인물들 중에서 상급 두품을 획득할 만한 혈족을 추정해 보자. 우선 직계 왕족이 아닌 방계 왕족의 후예들이 존재했다. 박씨 왕들은 석씨나 김씨 등 다른 혈통을 가진 인물들을 사위나 비로 맞이하며 왕족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왕실과 통혼한 혈족 모두가 왕족이 될 수 없었다. 왕족의 직계이더라도 해당 인물로부터 촌수가 떨어진 인물들이나 방계 혈족은 하위 두품으로 신분 하강을 상정할 수 있다. 후대 인물이나 무열왕의 8대손인 김범청과 그의 아들 낭혜화상 가문은 본래 진골이었지만 범청 대에 이르러 족강하여 득난(6두품)이 되었다고 한다.<sup>47)</sup> 중아찬의 관등을 소유한 김지성은<sup>48)</sup> 왕족이지만 족강하여 육두품이 된 인물로 여겨진다.<sup>49)</sup>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 두품의 상위 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왕족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박혁거세대부터 왕의 측근으로 누대에 걸쳐 요직을 맡았던 호공<sup>50)</sup> 일가와 같은 혈족들도 상위 두품에 속하였을 것이다.

한편 촌장 혈족의 방계가 누대에 걸쳐 직계에서 멀어지며 두품의 하락이 상정될 수 있고, 촌장의 측근으로 촌의 행정 사무 담당과 군공 등을 통해 유력가문으로 성장한 혈족들도 상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6촌장의 후손들이 중고기 6두품에 비정될 수 있다면, 5두품과 4두품에 속한 혈족들도 건국 이후로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존재해 왔을 것이다. 이외 6촌에 부속된 마을의 가계장과 직계 후손들이 후대 5두품으로 편재되었을 가

47)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法號無染於圓覺祖師爲十世孫 俗姓金氏以武烈大王爲八代祖大父周川品眞骨位韓絜 高曾出入皆將相戶知之 父範清族降眞骨一等曰得難(國有五品曰聖而曰眞骨曰得難)”

48)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重阿湌金志誠奉爲 亡孝仁章一吉滄亡妣觀肖里 …”

49) 李基白, 앞의 책, 1974, 50~51쪽.

5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38년(B.C. 20) ;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9년.

능성이 제시되어 있다.<sup>51)</sup>

또한 각 촌(후대 부)의 우두머리인 간들도 독자적인 행정 관리들을 거느렸다. 파사왕 23년 읍집벌국과 실직곡국이 경계를 다투다가 왕이 금관국의 수로왕에게 중재를 요청해 이를 해결했다. 수로왕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개최된 연회에 5부는 고위직 인물을 보내 접대케 하였으나 오직 한기부만이 위가 낮은 인물을 보내 불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각 촌내에서도 여러 등급의 관직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관직자들이 후일 5~4두품의 상위 두품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물론 건국 전후 시기부터 최상위 계층인 촌장 가문의 하위에 5두품에서 1두품에 비정될만한 5개의 신분층이 모두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로국이 계층 분화가 명확하지 않은 씨족사회인 6촌을 연맹해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씨왕 시대 사로국의 정치 체제가 갖추어지며 동시에 주변 소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헌한 자들이 공의 크기에 따라 사로국 차원 내지 해당 촌(부)에서 차등적으로 두품을 하사 내지 인정 받았을 것이다. 이외 소유 토지 등의 경제적 요소도 두품 획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도태되는 촌민들은 3두품~1두품에 소속되며, 더 이상 관직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평민층이 되었을 것이다.

이외 제5대 파사왕 23년(102년) 사로국이 읍집벌국을 정벌하자 읍집벌국의 국주가 와서 항복하였고 이에 인근 실직곡국과 압독국 국왕도 함께 항복했다.<sup>52)</sup> 읍집벌국은 『삼국사기』 「지리지」 ‘良州條’와 『삼국유사』 「王曆」의 ‘제6 지마이사금조’를 볼 때, 현재 경상북도 안강과 포항 일대에 비정한다.<sup>53)</sup> 그러나 실직곡은 『삼국사기』 지리지 ‘溟州條’기사에 “삼척군은

51) 이종욱, 앞의 책, 1982, 180~181쪽.

52)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왕 23년 추8월.

53) 이형우, 『新羅初期國家形成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78~79쪽.

원래 실직국으로 파사왕 때 항복해 왔는데, 지증왕 6년 州를 두고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다.”는 기사에 의해 강원도 삼척으로 비정할 수 있다.<sup>54)</sup> 또한 押督國도 오늘날 경산 일대 지역으로 비정된다. 기본적으로 2세기 초 신라가 경산 일대의 소국인 압독국은 물론 원거리에 위치한 삼척군 일대의 실직국을 정복할만한 국력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해당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박씨왕 시대 인접 소국에 대한 정복전이 전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박씨 왕족은 물론 후대 유입 집단인 석씨나 김씨 집단 모두 선진의 야철 기술을 가진 집단들이었다. 이들이 지닌 야철 기술은 이후 사로국이 진한 지역을 통합하는데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삼성 집단이 혼인 관계로 엮히며 세력 팽창을 도모하는 가운데 인접 소국에 대한 영토 확장의 노력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실제 파사왕대 음즙벌국 등의 복속 기사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 박씨왕대 대외 팽창의 일단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통합된 소국의 최고 지배자나 유력 집단의 수장들은 기존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세력을 인정받아 상위 두품에 편입되었다. 후대 일이나 금관국의 마지막 왕 김구해의 아들 무력이 각간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진골 신분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sup>55)</sup> 또한 백제 고구려 정복 이후 양국 지배층의 위상을 적절히 감안해 신라 관등 체계 안에 수용했던 행적이 있다.<sup>56)</sup>

54) 徐榮一, 「斯盧國의 悉直國 併合과 東海 海上權의 掌握」 『新羅文化』 21, 2003, 327~330쪽.

물론 음즙벌국(안강과 포항일대)과 실직국(삼척)의 위치가 너무 원거리이므로 후자의 위치 비정에 이견을 제시한 연구들도 제법 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본 논고의 중요 고찰의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5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9년.

56)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하 외관.

## V. 맺음말

신라 초기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와 후예 일족으로 박씨 성을 가진 총 7명의 왕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박씨 왕들은 탈해를 시조로 하는 석씨와 알지를 시조로 하는 김씨와 왕위를 교립하였다. 물론 신라 초기 기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일찍부터 존재했으므로 박씨 왕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신라 역사상 최초의 관찬 사서인 『국사』를 편찬케 했던 진흥왕이 김씨였음에도 시조인 혁거세가 박씨 성을 소유하고 건국 초기 총 7명의 박씨 왕들이 재위하였다는 행적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대 김씨 왕족과 구별되는 혈통을 가진 시조와 그 후예들이 계위하였고 그러한 역사상이 당대 신라인들에게 분명히 전승 각인되어 왔던 결과였다.

박혁거세는 선주집단인 6촌민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며,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 계승하기에 독자 세력이 미약하였다. 혁거세의 적자로서 왕위에 오른 2대왕 남해는 후래 유입집단이자 선진 철기기술을 지닌 석씨 집단과의 혼인을 통해 6촌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며 독자적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또 3대왕 유리는 왕비의 아버지를 갈문왕으로 책봉해 왕비 가계의 권위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박씨 왕 재위기 갈문왕에 책봉된 인물의 대부분이 왕비의 아버지임을 보면 이는 왕실 세력을 증강시키는 방편임을 알 수 있다.

4대 왕으로 석씨 왕족의 시조인 탈해가 즉위하자 탈해 역시 독자세력의 확보를 위해 후래 유입 집단인 김씨와 결탁하였다. 이에 5대왕으로 즉위한 유리왕의 2자 파사왕은 김씨 사성부인과 혼인해 왕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석씨 왕족과 김씨 집단의 밀착을 약화시켰다. 파사왕의 적자인 6대 지마왕도 김씨 애례부인과 혼인하며 부인의 아버지 마제를 갈문왕으로 책봉하였다. 거듭된 박씨 왕실과 김씨 집단의 혼인을 통해 지지세력의

확산과 왕실 권위를 고양시켰다. 한편 유리왕의 장자 일성이 7대 왕으로 박씨 □례부인과 혼인했고 그의 장자 아달라가 8대 왕으로 박씨 내례부인과 혼인하였다. 일성왕과 아달라왕은 족내혼을 통해 박씨 왕족 자체의 응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박씨왕 재위기 사로국의 신분 편성을 보면, 혁거세로부터 시작된 박씨 왕족과 남해왕의 사위로 왕위에 올랐던 석탈해와 그 일파 그리고 박씨 왕실과 거듭 혼인 관계를 맺으며 갈문왕에 책봉된 김씨 일족 등이 왕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층 지배집단으로 박씨 왕족의 방계 혈족과 혁거세를 추대해 사로국을 건국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6촌의 촌장과 그 가계 및 누대에 걸쳐 왕의 측근으로 요직을 수행했던 호공 일가와 같은 혈족이 위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명확한 계층 분화가 확인되지 않지만, 6촌장의 방계 후손이나 각 촌에 소속된 마을의 우두머리 등이 중하위 계층으로써 일반민과 구별되는 신분층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사료

-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三國史記』  
『三國遺事』

### 2. 저서

- 김병곤, 『신라왕권성장사연구』, 학연문화사, 2003.  
金元龍,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1987.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80.  
文暻鉉, 『新羅史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 1983.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선석열, 『신라 왕위계승 원리 연구』, 혜안, 2015.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申澄植,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1981.  
李基白·李基東, 『韓國史講座』 1 古代篇, 一潮閣, 1982.  
李德星, 『朝鮮古代社會研究』, 正音社, 1949.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이형우, 『新羅初期國家形成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3. 논문

- 姜仁求, 「斯盧六村과 國家의 成立段階 試考」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學研文化社, 1997.  
金炳坤, 「新羅 初期王權의 成長과 天神信仰」 『韓國思想史學』 13, 1999.  
今西龍, 「新羅葛文王考」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 金元龍,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歷史學報』 70, 1976.
- 金在弘, 「新羅 中古期の 村制와 地方社會 構造」 『韓國史研究』 72, 1991.
- 金哲垞, 「新羅上古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 1952 ;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 金光洙, 「新羅 上古世系の 再構成 試圖」 『東洋學』 3, 1973.
- 김병곤, 「斯盧國의 출범과 신라인의 건국관」 『신라사학보』 23, 2011.
- 金炳坤, 「新羅 骨品制度 成立期の 思想的 基盤」 『新羅文化』 22, 2003.
- 김병곤, 「신라 시조 인식의 변천과 五廟制의 太祖(始祖)大王에 대한 시론」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 43, 2014.
- 김병곤, 「혁거세 세력 등장 이전의 사로 육촌」 『한국고대사탐구』 24, 2016.
- 金元龍, 「慶州九政里出土金石竝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1952.
-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東亞文化』 7, 1967.
- 김재홍,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1996.
- 金哲垞, 「新羅 上古世系와 그 紀年」 『歷史學報』 17·18합, 1962.
-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 1973.
- 李仁哲, 「新羅上古世系の 新解釋」 『清溪史學』 4, 1987.
- 李鍾旭, 「新羅 上古時代의 六村과 六部」 『震檀學報』 49, 1980.
- 末松保和, 「新羅建國考(1932)」 및 「新羅六部考(1936)」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 文昌魯, 「新羅와 樂浪의 關係」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 徐榮一, 「斯盧國의 悉直國 併合과 東海 海上權의 掌握」 『新羅文化』 21, 2003.
- 徐毅植, 「辰韓六村」의 性格과 位置」 『新羅文化』 21, 2003.
- 宣石悅, 「新羅 葛文王의 再檢討」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2000.
- 선석열, 「신라본기의 전거자료 형성과정」 『韓國古代史研究』 42, 2006.
- 李文基, 「新羅 金氏 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 1999.
- 李文基, 「新羅 五廟制의 成立과 그 背景」 『金廷鶴博士米壽紀念 考古學·古代史論叢』, 1999.
- 李文基, 「新羅中古의 六部に 關한 一考察－骨品制와 關聯하여－」 『歷史教育論集』 1, 1980
-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 『韓國史論』 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1.
- 李鍾宣, 「細形銅劍文化의 地域的 特性」 『韓國上古史學報』 3, 1990.

- 李鍾恒, 「新羅六部考」 『國民大學論文集』 1, 1969.
- 이주헌, 「경주 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文化財』 4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李清圭, 「細形銅劍의 形式分類 및 그 變遷에 對하여」 『韓國考古學報』 13, 韓國考古學會, 1982.
- 全德在, 「上古期 新羅六部の 性格에 對한 考察」 『新羅文化』 12, 1995 ;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998.
- 丁仲煥, 「斯盧六村과 六村人의 出自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合, 1962.
- 丁仲煥, 「斯盧六村에 對하여」 『釜山 文理大學報』 3, 1960.
- 朱甫墩,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新羅를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1976 ;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 千寬宇, 『古朝鮮·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歷史學報』 98, 1983 ;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 崔鍾圭, 「慶州 九政洞一帶 發掘調査」 『博物館新聞』 139호, 1983.
-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 武田幸男, 「新羅六部와 그 展開」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1990.
- 三品彰英, 「骨品制社會」 『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63.
- 井上秀雄, 「新羅朴氏王系의 成立」 『朝鮮學報』 48, 1968 ;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津田左右吉, 「三國史記의 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日本書記の研究』, 岩波書店, 1924.
- 村上四男, 「新羅王都考略」 『朝鮮學報』 24, 1962.

Abstract

## Royal Influence and Identity Forming of the Park King Silla(新羅)

Kim, Byoung-gon

In the early days of Silla, There were seven kings whose name was Park including the founder of dynasty Hyeoggeose(赫居世). Some researchers deny the presence of Park king. Even though king Jinheung(眞興王) who compiled 'Gugsa(國史)' was Kim, the act of 7 king's region was Handed down to the Goryeo Dynasty. This means that there was fathers and kings who distinct with Kim king and This is result of Silla people's spread.

As you can see from six village people recommendation of Parkhyeoggeose's power was weak. Second king Namhae(南解王) weekend six village people's influence by make son in row with Seogtalhae(昔脫解) who had advanced iron skill.

Third king Yuri(儒理王) made queen's father Galmoonwang(葛文王) to made queen family powerful. Fourth king was Seog founder Talhae. Talhae also conspired with Kim's group to made more powers. The second son of Yuri and fifth king Pasa(婆娑王) married with Kim sasoung(史省) the Seok king and Kim group was weekend so the Kim could have more powers. The sixth king Zima(祗麼王) of Pasa son also married with Kim aere(愛禮) and made her father Galmoonwang. Pasa and Zima could power up supportive force and royal authority. But Yuri son Ilsung(逸聖) seventh king married

with Park □rae(□禮) and his son Adalla(阿達羅) eighth king married with Park naerae(內禮). Ilsung king and Adala king reinforced cohesion by family wedding.

As you can see from the Park king times Saroguk(斯盧國) identity formation. Park family and Seoktalhae's family and Kim family Constituted a royal family. And There was dominant group which was six village headman and Hogong(瓠公) family. There is no clear stratification but there was six village headman's descendent and village leader who was low level than public.

Key Words : Park-hyeoggeose(朴赫居世), Galmoonwang(葛文王), King Pasa(婆娑王), Kim sasong(史省), King Adalla(阿達羅王), Park naerae(內禮)

논문 투고일 : 2018. 03. 07  
게재 확정일 : 2018. 03. 28

심사 완료일 : 2018. 03. 23